

광동제약, 백신 담합의혹 벗어나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조달청이 내린 입찰제한 조치 해제
법원 “담합행위 했다 보기 어려워
집행정지, 공공복리 중대영향 없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 입찰
담합 혐의로 광동제약에 내려졌던 조
달청의 입찰참가자 자격정지 행정처분
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
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
법원은 광동제약이 제기한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광동제약이 신플로
릭스의 경쟁입찰과 관련해 공정한 집
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입찰참가
자격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가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
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광동제약은 지난 1월 조달
청이 내렸던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
한 조치에서 풀려나며, 이 날부터 모든
국가 입찰에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조달청이

국내 제약사들의 백신입찰담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15~2019년 자궁경
부암, 결핵, 폐렴구균 백신을 공급하는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광동제약을 포함
한 유한양행, 보령제약, GC녹십자 등
제약업체와 의약품 도매업체가 담합을
했다고 판단. 지난 해 8월 7개 법인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
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광동제
약의 경우 폐렴구균 백신 ‘신플로릭스’
의 경쟁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를 들리
리로 내세워 낙찰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광동제약측은 신플로릭스의
공급자는 광동제약이 유일하기 때문에
담합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
해 왔다.

NIP는 국가가 영유아, 노인 등 취
약계층을 상대로 백신을 무료 접종하
는 사업이다. ‘총량구매 현물공급 방
식’을 원칙으로, 국내 제약사, 유통사

들 간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업체를 선
정한다. 이 때문에 신플로릭스의 독점
공급권을 가진 광동제약은, 단독 입찰
을 인정하지 않는 NIP에서 번번이 탈
락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질병청은
NIP를 위해 신플로릭스가 필요했고,
도매업체 한 곳을 끼워넣어 명분상 경
쟁입찰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 형사재판에서도 각 업체 변호
인들은 질병청의 유찰방지 요청에 따
라 도매상을 들리리로 세운 것일 뿐, 담
합이 아니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한 것
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신플로릭스는
유통권이 광동제약에만 있는 품목이여
서 애초에 도매상을 들리리로 세우지
않고는 낙찰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며 “일본 역시 신플로릭스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광동제약은 그 요구에
응한 것일 뿐, 공정경쟁을 해쳤다고 보
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광동제약 관계자는 “소송
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이화의료원-코어인소프트, 연구개발 등 의료기술 교류 확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과 코어인소프트가 바이오 의료 기술 및 의료 영상 솔루션 연구개발과 관련된 상호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바이오 의료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교류 ▲의료 영상 솔루션 개발을 위한 의료 플랫폼 활용 ▲병원 및 기업의 현장 교류를 통한 고객 서비스 향상 ▲인력 및 정보의 상호 협력 등을 공동 진행한다. /이화의료원

헤지스골프,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 리뉴얼

2주간 리뉴얼 기념 할인 쿠폰 제공

LF의 브리티시 감성 골프웨어 브랜드 헤지스골프는 롯데백화점 명동 본점 매장을 리뉴얼 오픈하고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헤지스골프가 고객들의 높아지는 기대와 수요에 발맞춰 롯데백화점 본점 매장을 리뉴얼해 보편적인 쇼핑과 브랜드 경험이 가능한 체험형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6층 골프웨어 조닝에 위치한 해당 매장은 ‘퍼포먼스 골프웨어’로 변화된 브랜드 정체성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첫 번째 리뉴얼 스토어다. ‘메탈릭 실버’ 색상을 테마로 사용해 헤지스골프의 기능성과 도회적인 분위기의 스타일을 시각적으로 조화롭게 구현했다.

새 단장한 매장은 기존 강아지 모양

의 로고를 제외하고, 브랜드 탄생 20주년을 기념하는 ‘H20(에이치이공)’ 로고를 집중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H20’ 로고는 변혁적인 ‘H’ 이니셜과 이를 감싸는 원형을 통해 세대와 시대를 아우르는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표현했다.

한편, 헤지스골프는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6월 15일까지 약 2주간 할인 쿠폰, 마스크 등의 다양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는 스크래치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카카오플러스 친구 헤지스골프 계정에서는 6월 30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1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삼성바이오로직스, KAHR메디칼 CDMO 계약

면역항암제 신약 개발 전과정 원스톱 지원

완제생산, 임상계획 승인 등 지원
존 림 사장 “고객에 통합 서비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스라엘 바이오기업 ‘KAHR메디칼’의 면역항암제의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DSP502의 세포주 개발부터 임상용 원료의약품(DS)생산 및 완제 생산 서비스,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지원까지 신약개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AHR메디칼은 융합 단백질 분야의 바이오 제약사로, 암 세포와 T-세포를 결합시켜 종양을 선택적으로 타겟하는 다기능 면역 강화 단백질(MIR

P)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KAHR메디칼의 아론 페레그 최고경영자(CEO)는 “DSP502 면역항암제는 암세포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이중결합 단백질로 면역세포 반응을 활성화하는 원리로 암세포 치료를 수행한다”며 “글로벌 CDMO 리더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협업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통합형 CDMO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가 오로지 새로운 의약품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전문 영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바이오 의약품의 품질을 높이고 개발 기간을 단축해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CDO R&D 센터를 개소해 고객사와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넥스트 도어 CDO 파트너’로 도약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부분가동을 목표로 세계 최대 규모의 4공장 건설을 진행 중이다.

/이세경 기자

라이크와이즈 올리브영 등 전국 200개 매장 입점

올영세일 쿠폰 증정 등 이벤트 진행

라이크와이즈(Likewise)가 MZ 세대와의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 올리브영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 등을 포함한 전국 200여 매장에 입점했다고 2일 전했다.

라이크와이즈는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이 지난해 9월 론칭한 클린 뷰티 브랜드이며, 고보습 수분케어 M

Z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피부에 빠르게 수분을 공급해주는 ‘수과차지 워터젤’, ‘크림엔크림’, 고보습 효과를 지닌 ‘크림 밤’ 등이 브랜드 대표 제품이다.

한편, 라이크와이즈는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도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올영세일 20% 할인 쿠폰 증정 행사 등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은미 기자

보령컨슈머헬스케어 ‘브링스킨 에어 마스크’ 출시

친수성 원단 사용, 통기성 우수

헬스케어전문기업 보령컨슈머헬스케어가 더운 여름철에도 편하게 숨쉴 수 있는 ‘브링스킨 에어 마스크(샤진)’를 선보였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의 건강솔루션 브랜드 ‘브링(BRing)’에서 출시한 ‘브링스킨 에어 마스크 KF-AD’는 2g대의 초경량 마스크로, 부드러운 감촉과 우수한 통기성이 강점인 쿨-테크 제품이다. 이에 장시간 착용해도 쾌적하게 마스크 착용할 수 있다.

비결은 원단에 있다. ‘카렌딩 공법’으로 만든 특수 원단을 안감에 적용해



부드러운 감촉을 제공하는 한편, 빠른 수분 흡수와 건조시간을 자랑하는 ‘친수성 원단’으로 우수한 통기성을 제공한다.

가볍고 쾌적한 사용감뿐 아니라 마스크의 본래 기능 역시 충실하다. 비말 차단, 식약처 허가되는 물론 최대 99.5% 항균 효과와 80.2% 자외선 차단 효과 테스트, 72.5%의 분진포집효율 효과 테스트, 안감에 대한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된 제품이다.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 유럽서 유플라이마 효과·안전성 확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휴미라 투여 환자에 유플라이마 활용 유사한 유효성·안전성 결과 확인

셀트리온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의 임상 3상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 2일 (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유럽 류마티스학회(EULAR)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다.

셀트리온은 52주 동안 3상 임상을 진행하며 유플라이마의 유효성, 약동학 및 면역원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유플라이마 투약군, 휴미라 투약군, 휴미라 투약 후 26주부터 유플라이마로 교체 투약군 등 3군에서 모두 1년간 유사한 유효성 및 약동학, 안전성 결과를 확인했다. 교체 투약 후 항체 생성에 따른 면역원

성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등 3군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이번 임상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를 투여하던 환자가 유플라이마를 투여해도 유효성과 안전성이 유사함을 입증했다.

유플라이마는 아달리우맙 성분 바이오시밀러로 세계 최초로 시장에 선보이는 고농도 제형으로, 약물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주사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트르산염(구연산염)을 제거한 것이 특징이다.

/이세경 기자